



실적보다 실질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한전기공

- 한전기공(주) 울산사업소 -

우리나라 산업발전 및 경제발전에 초석인 전기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발전설비를 유지 보수 하는 한전기공(주) 울산사업소(소장 전홍기)가 있다.

울산시 남구 남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전기공(주) 울산사업소는 기력 6개호기, 가스터빈 6개호기, 스팀터빈 3개호기 등 총 3,000 MW의 설비를 총 150여명의 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실적 쌓기 위한 무재해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다.



▲ 전홍기 소장

어 그 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안전이란 모든 작업에 있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울산사업소 직원의 안전 수준이 상당히 높아 누가 지시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합니다』라는 전홍기 소장의 말에서 위험이 큰 만큼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이곳의 굳은 의지를 느끼게 한다.

전홍기 소장은 사고 발생에 대해 『모든 시설에 대해 Fail Safety 차원에서 접근하고 조

치를 취한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없다』라는 견해를 비친다.

사고의 90%이상이 사람의 잘못에서 비롯되므로 모든 사고는 사람에 의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재해 Zero를 위한 활동 몇가지를 소개한다.

발전소 특성상 위험 요소가 없는 공정이란 없을 정도인 이곳은, 특히 고소작업과 중량물 취급이 많아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년중계획예방정비(O/H)가 시행되어 직원의 작업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설비가 노후화되



T-4S 혁신 운동

개인 및 작업 단위별로 부적절한 환경, 불안정한 행위의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재해예방 혁신 운동으로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작업전 짧은 시간(약 5분)내에 단위 작업팀장(조장)이 주관하여 작업사항 전달과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는 위험예지 Meeting인 T(Toll Box Meeting)와 단위작업 팀장(조장)이 주관하되, 시행주체는 작업자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작업전, 중, 후 작업장 주변환경을 정리(Settlement), 정돈(Straight), 청소(Sweep), 청결(Sanitation)을 4S로 Check List를 이용한 운동이다.

안전경영체제 구축

전사적 안전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재해 예방활동 추진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전 사업소의 무재해달성과 대외공신력 및 경쟁력 창출을

위한 체제로 “사업소장의 안전경영의식에 관한 사항”, “사업소장의 재해예방 투자노력에 관한 사항”, “안전관계자 활동에 관한 사항” 등 16개 항목에 대해 매년 10월까지 자체 평가를 하고, 이를 본사에서 적정여부 및 보완 확인을 통해 2003년까지 전사업소가 초일류 사업장으로 탄생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화재예방활동

최근 비가오지 않아 겨울철 가뭄이 심각하며, 건조한 공기로 근로자 건강뿐만 아니라 화기에 의한 화재위험이 높다.

따라서 인화성 물질은 필요한 수량만 현장에 반입하고, 저장소를 마련하여 따로 보관토록 조치하고, 난방기구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의 방치를 금지한다.

특히 용접작업 등 화기 작업시는 소화기를 휴대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결빙 가능성이 있는 옥외 설비, 각종 배관, 물탱크 등을 현장순찰시 중점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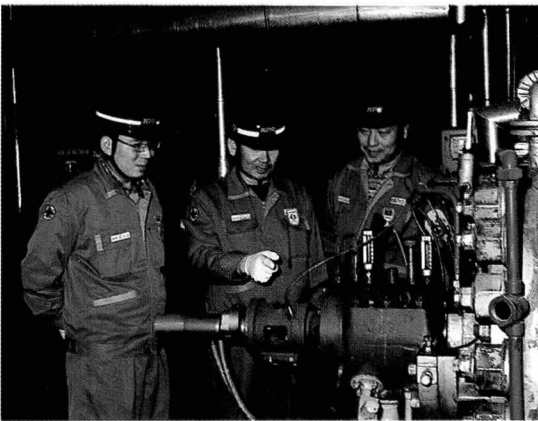
일용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울산사업소에서는 그동안 발생한 아차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3건 중 2건이 작업이 익숙치 못한 일용원이 일으킨 사고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외부 일용원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채용전에 보건관리자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작업이 어려운 사람은 사전에 채용을 금지시키고, 안전관리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지급 후 3회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안전관리자, 현장팀장, 작업조장 등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체 직원이 강사가 되어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기계·전기 등 설비별 위험성, 작업유형별 위험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밖에 동절기에는 동상, 뇌·심혈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므로, 전 직원에게 안전 및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월 2회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숙지시키고, 근로자 스스로 개인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록 건강 정보 전달과 주기적인 운동을 장려한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및 “Clean 3D” 추진과 관련하여 작업환경 개선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매년 2회 작업장 환경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을 개선하였다.

어느 통계에서 우리 나라의 장애자 중 선천적 장애자보다 각종 재해로 인한 후천적 장애자가 많다는 발표를 예로 들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흥기 소장은 각종 조회나 미팅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나 국가에 많은 손해를 주지만 무엇보다도 개인 본인이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 아직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를 볼 때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근로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소장과 안전활동을 실천하는 근로자가 하나가 되는 모습과 지난 10월에는 삼성석유화학으로부터 완벽한 안전관리 능력과 탁월한 정비품질을 인정받아 『Q-Vender A등급』획득에서 기대와 축하를 하며, 한전기공(주) 울산사업소의 끝없는 발전과 무재해의 금자탑을 이룩하길 기원한다. <취재, 사진:최종덕>